

東南亞 諸國의 表情

(2)



朴 漢 宗

大韓電氣協會 出版部長

13時 臺灣 中正國際機場(空港)을 出發, 空中에 뜨니 햇빛에 反射되는 눈 아래 깔린 흰 구름이 雲단을 깔아 놓은 듯 눈부시게 아름답다. 한편, 먼 곳에 뭉게 뭉게 솟아 있는 구름들은 거대한 눈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았고 가까이에 점점이 흩어져 있는 구름들은 마치 일제히 高射砲彈를 쏘아 올린 것 같았다.

대만에서는 그렇게도 날씨가 꾸물대더니 어제와 오늘이 판판이다. 機上에서 13시30분경 食事를 하고 나니 벌써 홍콩 上空까지 왔다. 홍콩근방에는 작은 섬들이 많기도 했고 배들이 꼬리를 물고 달리고 있었다. 홍콩에서 泰國行 비행기를 갈아타고 出發한 것이 15시40분. 그리고 보니 機內 人種들이 싹 달라졌다. 대만에서 出發할 때는 黃人種 一色이더니, 泰國行은 노랑머리, 검은 얼굴들 등 잡종으로 변했다.

홍콩을 出發하여 바다가 끝나고 陸地에 進入하니 그곳이 월맹 상공. 눈 아래 펼쳐지는 월맹 산들에는 나무들이 울창하였으며, 그 옛날 월남전이 생각난다. 산은 푸른데, 江물은 赤色 一色이다. 비가 와서 그럴까? 4시가 지나 또 食事를 준다. 飛行機만 타면 食을 주니 오늘은

點心을 두 번 먹는 셈.

스튜어디스들이 측은해진다. 飲料水 날라다 주고 술도 주고 食事도 운반하고, 大學 나와서 겨우 식사 심부름이나 하고 있나 싶어, 나 같은 딸을 스튜어디스 시키지 않겠다 싶었다. 勿論 職業에는 貴賤이 없는 것이지만, 옛날 飛行機 승무원이라면 멋있는 것인줄 알았는데.

泰 國

‘안전 벨트 着用’, ‘금연’ 표시가 반짝이더니 高度를 낮춘 비행기가 돈무양 空港에 到着한다. 이렇게 해서 空港에 到着한 時間은 이곳 時間으로 17시 5분. 홍콩이나 대만보다 1시간 늦고 韓國보다 2시간 늦다.

空港에 내리자마자 우리나라 金星과 三星의 大型 간판이 눈에 뜨인다. 空港에서 Bangkok 中心地까지 대략 25km거리인 宿所로 向하는 途中 韓式 食堂에서 저녁으로 불고기 正食. 오늘 네번째로 먹으니 배가 불러 못먹겠다.

날씨는 폭폭 찌지만 바람이 솔솔 불어 시원하다. Bangkok 市内 NENAM 호텔에 투숙했는데, 호

텔 규모가 대만보다 크고 시설이 화려하다. 그러나 이 나라는 1人當 國民所得이 千불 정도라니 못 사는 나라에 속하는 셈이다. 그래서인지 길가 집들이 판자집같이 초라한 것이 많았다.

타이의 政治体制은 立憲君主制이다. 現在의 國王은 차크리 王祖 제 9대제에 해당하는 부미볼 아둘라데스 王. 立憲君主라고는 하지만 國王을 타이의 國敎인 불교의 최고 보호자로서 경애하는 國民들에게는 아직까지 정치적 영향력이 있다고 한다.

타이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中央에 위치하며, 버마·라오스·캄푸치아·말레이시아의 4개국에 둘러 싸여 있다. 國土의 面積은 51.4만km²로 우리 韓半島의 약 2.5배 정도이고, 南韓만의 면적으로 따지면 5배가 조금 넘는다. 人口는 약 5,209만명이며, 1km²당 人口密度는 100명이라고 한다.

타이의 主要 수출 품목은 쌀·고무·옥수수 등과 같은 1次産物이다. 東아세아 중에서 唯一하게 독립을 유지해 왔으며 또 植民地化를 겪지 않은 까닭에 다른 나라들처럼 帝國主義的 경제 체제 아래 苦生해 본 경험은 없지만 完全히 自立된 國民 경제를 확립했다고는 보기 어려웠다.

이 나라는 日本의 경제 진출을 경계해야 할 나라중의 하나라는 소문대로 自動車, TV 등 電氣製品 大部分이 日製였고, 길거리에서 눈을 씻고

봐도 韓國産 車는 볼 수가 없었다.

타이語로 ‘천사의 도시’(크룽텝)’라고 불리는 타이의 首都 Bangkok, 옛날에는 ‘東洋의 베니스’로 격찬되던 물의 都市였지만 歲月과 더불어 빌딩 숲으로 뒤덮인 現代的 都市로 변모한 Bangkok의 人口는 약 600만명. 市內에는 自動車, 버스, 삼ล้อ라고 불리는 소형 三輪車가 함께 어울려 소음이 대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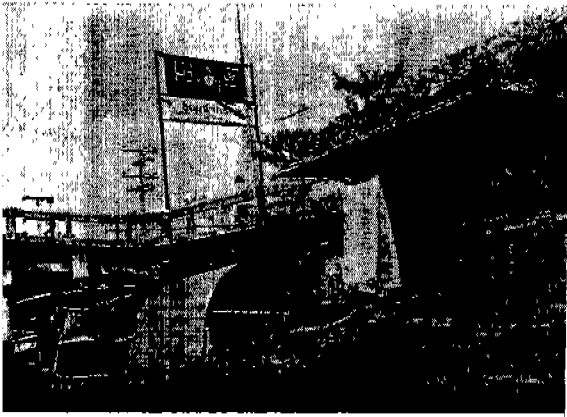
21일 아침 예정보다 좀 빠른 7시 반에 水上市場을 향해 專賞넌 모터 보트를 탔다. 호텔 앞 船着場에는 팔뚝만한 고기들이 펄떡펄떡 뛰고 있었다. 이곳에는 飼料를 뿌려 놓아 이렇게 고기들이 많이 모여든다고 한다.

이 차오프라야 江은 런던의 템즈 江, 파리의 센 江처럼 古都를 끼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詩情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Bangkok을 西南쪽으로 흐르는 이 江은 近代化에 바빠진 都市와 生存競爭 속에서 사람들을 감싸 주듯 완만하게 흘러 이 都市에 안온함과 위안을 주고 있는 것 같았다.

江은 都市의 西쪽을 크게 굽어 南쪽으로 흘러 湄南 三角洲를 지나 삼 만으로 흘러 들어 가고 있다. Bangkok의 市街地는 이 차오프라야 江을 中心으로 左右에 두서 없이 펼쳐져 있는데, 우리와 같은 旅行客들이 주로 들르는 곳은 차오프라야 江의 오른쪽 연안 일대이다.



△ 江가에 즐비한 水上家屋



△ 보트 家屋

보트가 달리는 江 兩쪽으로 水上家屋들이 즐지어 있었고 그 앞에는 보트들이 즐비했는데, 一世帶의 家屋역할을 하는 보트마다 대문(부대로 만든 문짝)이 열려져 있어 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다. 배 안에는 침구랑 食器 등이 정돈되어 있고 돛자리인지 거적인지 모를 침상에 사람이 누워 있는 모습도 보였다. 한 때 泰國政府에서는 이 보트族들을 陸地로 移住시킨 일이 있었는데 어

러서부터 水上에서 살아서 흔들리는 것이 習慣이 되어 陸地에서는 잠도 안오고 不安하여 다시 물 위로 돌아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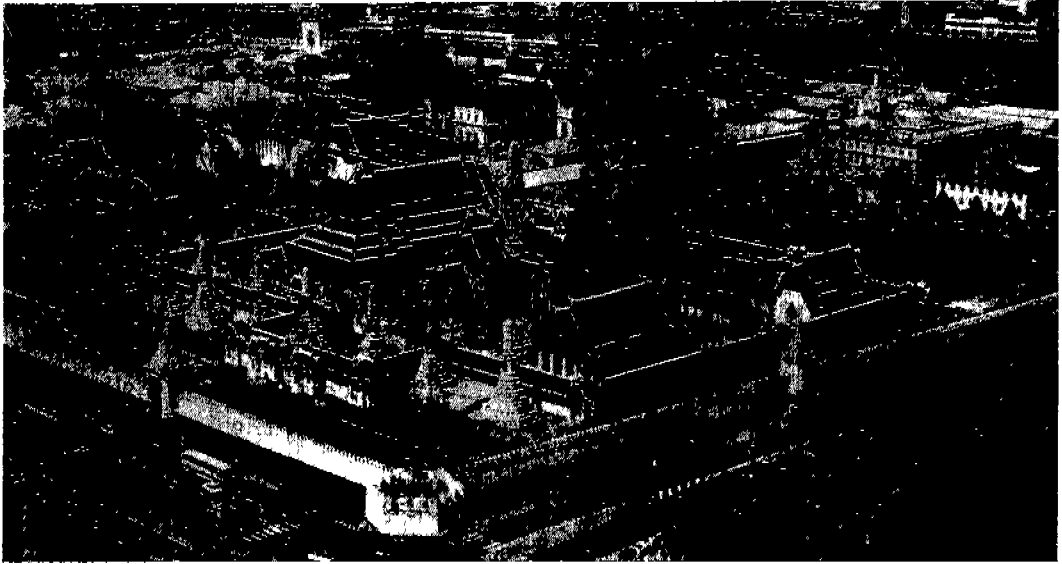
水上家屋은 옛날의 우리나라 청계천 판자집과 흡사하였다. 집 뒤쪽은 陸地에 걸쳐져 있고 앞쪽은 기둥을 여러개 물 속에 박아 지탱하고 있었다. 그리고 집집마다 水中으로 연결되는 나무 계단이 있어, 뒤로는 陸地로, 앞으로는 水中으로 出入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았다. 물은 탁한 靑綠色을 띠고 있어 그리 깨끗해 보이지 않았으나 그 물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女人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우리가 탄 보트(중앙에 통로가 있고 양쪽으로 3인 정도 앉을 수 있는 座席이 50개 정도 있는)가 途中에서 정지하면 女人 2名이 탄 노를 짓는 보트가 몰려 와서 과일이라든 모자, 인형 등을 사라고 조른다. 모자고 인형이고 普通 4달러, 우리 돈으로 2,800원 정도이다.

江가의 집들은 大部分 판자로 된 초라한 것이었지만 간혹 白色의 아담한 벽돌집들도 있었으



△ 王宮境內에서의 視察團 一行



△ 王宮全景

며, 작은 들에는 낫익은 칸나, 백일홍 등이 보였고 기타 이름모를 꽃들이 많이 피어 있어 꽃이 없던 臺灣과 비교가 되었다. 배 위에서 먹어 본 우툴두툴한 껍질을 가진 길쭉한 수박만한 카농이라는 과일은 속이 노랗고 끈적끈적했으나 갈콤하고 씹히는 맛도 괜찮았고, 몽키 바나나라고 하는 손가락만한 바나나는 한 입에 몽땅 들어가는 맛있고 재미있는 과일이었다.

王宮과 寺院

한참만에 방콕 觀光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王宮과 프라케오 寺院(에머랄드 寺院), 그리고 새벽의 절이라는 왓아룬이 있는 곳에 배로 도착했다.

1782년 現王朝인 방콕 王朝가 차크리왕(라마 1세)에 의해 방콕에 건국되고 새로운 王朝의 中心으로서 세워진 것이 바로 有名한 이 王宮과 왓 프라케오 寺院이라고 한다.

하얀 성벽으로 둘러싸인 100에이커나 되는 廣大한 부지에는 실로 다양한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 王宮 안에는 現地人(태국인) 案内者가 없으면 出入할 수 없으며, 짧은 바지와 샌들은 禁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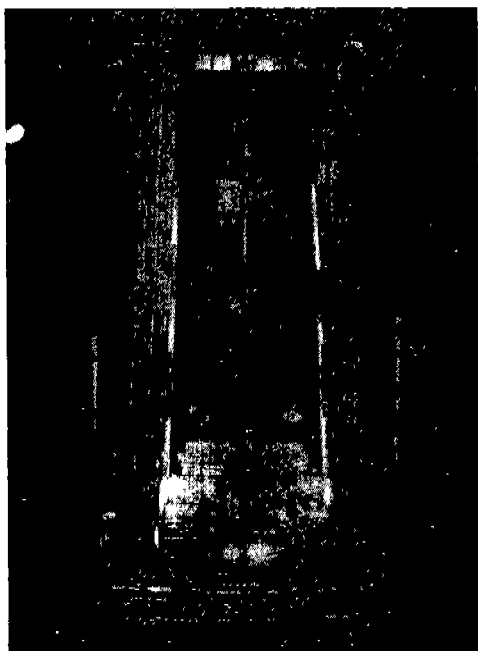
王宮

王宮은 몇 개의 건물로 나뉘어 있는데, 역대 王들이 改築 내지는 擴張을 하여 양식이 같지 않아서 多樣的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이곳은 王宮이라고는 하지만 現在는 國王이 外國大使를 접견하거나 국민을 맞는 등 公式行事 때만 사용하고 國王 一家가 生活하고 있는 곳은 치트랄라다 宮殿이라고 한다.

王宮 한 북쪽에 있는 것은 차크리 宮殿으로, 라마 5세가 세운 것이고, 차크리 宮殿을 향해 오른 편에 있는 것은 두싯 마하 프라산 宮殿으로 1789년 라마 1세 때 세워진 것이다.

차크리 宮殿을 끼고 이 두싯 宮殿과 반대 편에 서 있는 것은 아마린 비나차이 宮殿이고, 그 왼쪽에 있는 보름피만 宮殿이 有名한 뮤지컬 “왕과 나”의 안나가 기거했던 곳이지만 문이 폐쇄되어 있었다.

王宮 案内를 맡아 준 泰國青年은 韓國말을 더듬거리지만 잘하는 편이었는데, 王宮소개와 함께 韓國에 대한 事情에 환한지 ‘백담사’ ‘영계’ ‘두목’ ‘바람둥이’ 등 익살스러운 말과 語感으로 우리들을 계속 웃겼다.



△ 에머랄드 佛像

왓 프라케오(에머랄드 寺院)

우리들이 왓 프라케오를 관람하고 우선 놀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품고 있던 佛敎寺院에 대한 이미지와 너무도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질

은 남빛과 오렌지 빛깔의 3층 지붕, 벽에 수놓아진 華麗한 모자이크, 번쩍번쩍 빛나는 黃金 불탑 등, 잘 살펴 보면 極樂淨土를 이 世上에 구현시켜 놓은 듯하다.

에머랄드 佛像이 모셔져 있는 本堂은 1780년 라마 1세에 의해 세워졌다고 한다. 신발을 벗어 건물 앞에 있는 신발장에 넣고 왼쪽 문으로 들어 가면 여러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 마루에 앉아 있다. 일반적으로 東洋人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있고 西洋人들은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佛像을 심각하게 바라 보고들 있는데, 各者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正面에 綠色 반투명으로 빛나는 변옥 Jasper로 만들어진 높이 75cm, 폭 45cm의 에머랄드 佛像이 조용히 앉아 있다. 예상 밖으로 크기가 작아 失望하기도 했으나, 4 季節마다 國王이 엄숙한 의식으로 손수 衣裳을 바꾸어 입힌다는 권위 있는 佛像이다. 이 불상 앞에는 3개의 門이 진주 조개로 장식되어 있고, 그것을 지키는 6마리 靑銅 사자상이 서 있다. 그리고 건물 아래부 분에는 뱀을 손에 쥐고 있는 금빛 가루다 小像이 늘어서 있다.

● 에머랄드 불상의 길고 긴 여행

이 불상은 기원전 43년에 현재의 북인도 파토나에서 만들어졌다. 300년 후 그 곳에서 일어난 내전을 피해, 경전한 불교도들은 불상과 함께 실론으로 건너 갔다. 457년 파잔왕은 불상을 물려 받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배가 난파되어 불상도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런데 이 불상이 파도를 따라 앙코르해안으로 밀려온 것이다.

그 후 야유타야를 거쳐 치앙라이로 건너갔다. 여기서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석고를 씌우고 불탑 속에 간직해 두었다. 세월이 흘러 1434년, 이 불탑에 벼락이 떨어져 그 속에서 석고가 벗겨진 채 에머랄드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불상이 나온 것이다.

이 무렵부터 이 불상은 뭔가 불가사의한 힘을 갖고 있다고 여겨져 사람들에게 숭배되기 시작했다. 치앙마이 왕도 이 소문을 듣고 불상을 코끼리 등에 싣고 치앙마이로 옮기려고 했다. 그러나 코끼리는 치앙마이 쪽으로 향하지 않고 람판으로 향했다고 한다. 이것을 본 왕은 이것도 불상의 의지구나라고 느껴 불상은 그대로 람판의 사원에 보관되었다고 한다.

그후 불상은 다시 치앙마이의 왓 체디루앙(Wat Chedi Luang)안에, 다음은 르안프라반, 또 나중엔 비엔찬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1778년 라오스를 정복한 탁신 왕이 툰부리의 왓 아룬(Wat Arun)으로 가지고 돌아왔다. 툰부리 왕조 멸망 후에는 포 사원을 거쳐 1784년에 왓 프라케오로 옮겨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새벽의 절 (금경사 계단)

새벽의 절(왓 아룬)

이 寺院은 1842년 工事를 시작하여 라마 5世末인 1909년에 完成되었으며, 에머랄드 佛像도 예전에는 이곳에 있었다고 한다.

75m의 탑은 계단이 급경사로 되어 있어 난간을 잡고 오르는데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는데, 탑 全体에는 여러 조각이 새겨져 있었고 거울 조각과 有色 타일이 온통 부착되어 있었다.

탑 안에 있는, 부처의 탄생,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부처, 최초의 說法을 하는 부처, 그리고 부처의 入滅로 되어 있는 4개의 佛像은 불만하였다.

탑 入口에는 行商들이 많았는데, 서툴기는 했지만 간단한 韓國말을 할 줄 알았다. 韓國 사람이 이곳에 얼마나 많이 오는가를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알만하였다. 전통적인 泰國 의상을 입은 女人과 사진 찍는 모델료가 1달러이고 기념품들도 5달러 이하짜리가 많았다.

날씨는 계속 무더운 것 같았지만, 호텔, 食堂, Bus, 기타 모든 곳에 에어컨 施設이 잘 되어 있어 더위를 몰랐고, 밖이라 나무 밑은 바람이 불고 습도가 높지 않아 지낼만 하였다.

우리가 타고 다닌 見學 Bus는 벤츠 車였는데, 이곳은 운전석이 右側에 있고 車輛은 左側通行으로 되어 있다. 車에는 助手가 꼭 따라 다니는데 (홍콩도 同一) 그 助手는 車와 生死苦樂을 함께 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車 안팎은 항상 손질이 깨끗이 되어 있었고 잠도 車에서 자고 음식은 사다가 車 밖에서 먹는다고 한다.

그의 最大希望과 目的은 아마 Bus 운전사가 되는 것이겠지.

市内에는 오토바이로 만든 三輪車가 일반 택시와 함께 많이 運行되고 있었다. 料金は 미터제가 아니고 어디까지 얼마라고 定하고 탄다고 한다. 한편 길을 달리는 Bus 出入口 문은 전부 개방한 채 달리고 있었고, 三輪車도 천정만 있어 안에 있는 승객들이 다 보였으며, 승객은 3명 정도 탈 수 있게 되어 있었다.



△ 모델료 1달러

그리고 용달차 짐칸에 타고 가는 것은 보통이고 편안히 누워서 가는 것도 볼 수 있었다.

길가에는 行商들이 즐지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活氣를 느꼈고, 단속이 심한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었다.

泰國 民俗村

泰國 民俗村에서 傳統音樂과 춤, 그리고 코끼리 쇼를 求景한 것도 인상적이었다. 쇼가 始作되기 전에 各國 민요가 흘러 나오는데 우리나라 아리랑도 한목 끼고, 태극기도 場內를 장식하고 있어 반가웠다.

室內에서 춤과 노래, 그리고 킥복싱을 하고 나서 女子 出演者들이 一部 觀覽客들에게 다가와 같이 춤추자고 권한다. 덕분에 손목을 비비꼬며 泰國 춤 한번 추어 봤지만 제대로 된 것인지 모르겠다.

코끼리 쇼를 野外에서 보고 난 후 生前 처음 코끼리 한번 타봤는데, 뒹뒹뒹 웃음만 나온다.

타이에서 訪問한 업체는 타이 도시바와 인터트라포 2 個社이다. 타이 도시바는 태국·일본의 51:49 비율 合作會社로서 TV, 냉장고, 팬들을 製作하고 있었고, 인터트라포는 종업원 200名 규모의 變圧器 제조 회사인데 우리나라의 10余年前의 手動式 製造方法으로 製品을 제작하여 東南亞 一帶에 수출하고 있었다.



△ 코끼리 타기

泰國 사람들은 집에서 밥을 해 먹는 家庭이 드물고 밖에서 사먹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길가 탁자에서 그릇 몇 개 놓고 食事하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었다. 中國人 거리의 商品들을 보니 상당히 구식이었는데, 예를 들어 안경테같은 것은 우리나라 8·15 해방 직후의 것과 같은 品質의 것이다.

市內는 차량 체증이 심해서 10차선이 꽉 막혀요지 부동인 때가 많다. 한쪽에는 판자집이 즐비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高層 빌딩을 짓고 있었으며, 어딘지 모르게 活氣차고 發展 可能性이 있는 나라라는 느낌을 받았다. 5월 23일은 泰國을 떠나는 마지막 날. 아침 6시 一行중 한 사람이 깨워 호텔 풀場에서 함께 水泳을 하니 氣分이 상쾌해지고 어제의 宿醉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다음 호에 계속)



△ 泰國춤 示範(?)